

[2025 글로벌 베스트 에셋 매니저]

대형 운용사는 '신뢰', 미드마켓은 '전문성'으로 재편

AI·디지털 전환 바람 타고 자산군별 판도 변화

사모대출·인프라 세컨더리 부상...포트폴리오 다변화 가속

GIP·PAG·GCM·노스리프 첫 진입...새 강자들 약진



자료=한경글로벌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대형 글로벌 운용사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미드마켓(중형) 투자 부문에선 새로운 전문 운용사들로 선호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PE)와 인프라 부문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는 KED 글로벌이 'Korean Investors' Picks-2025 글로벌 베스트 에셋 매니저' 시장을 위해 국내 40 여개 자본시장 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국내 큰손들의 해외 글로벌 운용사에 대한 선호도에 판도 변화가 감지됐다. 대형 투자(라지캡) 부문에서는 여전히 아폴로, 블랙스톤, 브룩필드 등 글로벌 '헤비급' 운용사를 선호했다.

이들의 규모와 딜 소싱·집행 역량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 미드캡 부문에서는 전문성과 특화 전략을 앞세운 운용사들이 존재감을 키웠다. 사모펀드와 부동산(실물), 인프라 부문에서 각각 오닥스, 케인 앤더슨, GCM 그로브너, 노스리프 등이 순위를 끌어올렸다.

40 개 한국 투자기관 참여...자산군별 '톱 3' 선정

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약 40 개 기관의 대체투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외 운용사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자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 한국투자공사 등 국내 대표 기관투자가 관계자들이 망라됐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사모펀드 △사모대출 △부동산 △인프라 부문에서 각각 2 곳, 펀드오브펀드(FOF) 부문에서는 3 곳의 선호 운용사를 선택했다. 평가 기준은 △운용 역량 △고객 서비스 △브랜드 평판 △상품·서비스 혁신성을 종합했다. 전반적으로 '운용 역량'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꼽혔다.

 자산군별 선호 글로벌 운용사(GP) Top 3				
사모펀드 (PE)	사모대출 (PD)	부동산 (RE)	인프라 (INF)	펀드오브펀드 (FOF)
대형	대형	대형	대형	해밀턴 레인 하버베스트 파트너스 스텝스톤 그룹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아포젼 캐피탈	BGO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	
CD&R	아레스 매니지먼트	블랙스톤	맥쿼리 에셋 매니지먼트	
EQT 파트너스	골럽 캐피탈	세일스 IM	GIP	
중형	중형	중형	중형	
오닥스 프라이빗 에쿼티	먼로캐피탈	액티스	안틴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파트너스 그룹	뉴버거 버먼	케인 앤더슨	GCM 그로브너	
PAG	파크 스퀘어 캐피탈	스타우드 캐피탈 그룹	노스리프 캐피탈 파트너스	

* 2025년 한경글로벌 뉴스 설문조사 기반. 순위는 공개되지 않음. (가나다 순)

(출처: 한경글로벌뉴스)

자료=한경글로벌

PE: 대형은 안정, 중소형은 AI·기회 전략에 주목

대형(라지캡) PE 분야에서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클레이턴 더빌리어 앤 라이스(CD&R), EQT 파트너스가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아폴로는 약 7330 억 달러의 운용자산(AUM)을 바탕으로 2024 년 서울 사무소를 개설하며 국내 ‘큰손’들과의 접점을 넓혔다. EQT 역시 공무원연금 출자 약정 등 꾸준히 한국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했다.

중소형(미드캡) PE 분야에선 오닥스 프라이빗에쿼티, PAG, 파트너스그룹이 뽑혔다. AI 기반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전략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PD: 메인스트림으로 부상

사모대출(PD)은 기관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빠르게 늘리며 주류 자산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형 PD 분야에서는 아포젼 캐피탈, 아레스 매니지먼트, 골립 캐피탈이, 중소형 부문에서는 먼로캐피탈, 뉴버거 버먼, 파크 스퀘어 캐피탈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직접대출 전략, 특히 로어 미들마켓 기업 대상 대출이 높은 수익성과 방어력을 갖춘 영역으로 평가받았다.

RE: 에쿼리 편중에서 크레딧·세컨더리로 재조정

국내 기관들은 그간 에쿼리(지분) 투자 중심이었던 해외 부동산(RE) 포트폴리오를 크레딧(신용 대출)과 세컨더리(구주 거래) 전략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대형 RE 분야에선 BGO(벤틀그린오크), 블랙스톤, 세빌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톱 3 에 이름을 올렸다. 블랙스톤은 호텔·물류시설에 주목하고 있으며, BGO 는 미국 온쇼어링 트렌드를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다.

중소형 RE 분야에선 액티스, 케인 앤더슨, 스타우드 캐피탈 그룹이 선정됐다. 케인 앤더슨은 미국 외래진료센터와 시니어 하우스 등 대체 부동산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INF: AI·디지털 수요 확대에 전략적 비중 확대

AI 붐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데이터센터·물류시설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프라(INF) 자산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5 년 초 ‘인프라 솔루션’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이 분야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인프라 분야에선 브룩필드 에셋 매니저먼트,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GIP), 맥쿼리 에셋 매니저먼트가 상위 3 자리를 차지했다. GIP 는 2025 년 사우디 아람코의 1000 억 달러 규모 자푸라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컨소시엄을 주도했고, 국민연금이 3 억 달러를 출자했다.

중소형 인프라 분야에선 안틴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GCM 그로브너, 노스리프 캐피털 파트너스가 선정됐다. GCM 과 노스리프가 톱 3 에 오른 것은 2021 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이다.

FOF: 세컨더리 시장 확대 기대

펀드오브펀드(FOF) 분야에서는 해밀턴 레인, 하버베스트 파트너스, 스텝스톤 그룹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사모대출 세컨더리 시장은 2025 년 200 억 달러에서 2026 년 400 억 달러로 두 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컨더리 전략이 유동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 LP 들이 자산군별·규모별로 전략을 정교하게 차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형 자산에서는 글로벌 톱티어 운용사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한편, 미드마켓에서는 전문성과 차별화된 전략을 갖춘 운용사를 적극 발굴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AI 전환, 디지털 인프라 확대, 세컨더리 시장 성장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 기관투자가들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도 한층 입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